

광주비엔날레, 시민·전문가 대상 아카데미 운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는 '2025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의 핵심 프로그램인 시민 참여교육과 전시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전시기획자 양성과정 ▲시민참여 투어프로그램 ▲전시해설사 양성과정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예비 전시기획자와 시민, 전문해설사를 대상으로 현대미술과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의미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차세대 기획자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기획자 양성과정'은 오는 9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13개국 17명의 신진 기획자가 참여한다. 올해 교육 주제는 '국가성과 큐레토리얼 실천(On Nationhood and Curatorial Practice)'으로,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의 변화와 동시대 예술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탐구한다. 최빛나 큐레이터(2026 베니스비엔날레

전시기획자 과정, 13개국 17명의 신진기획자 집중 현장 교육

미술관-5·18사적지 연계 시민참여 투어, 전문가 해설 곁들여

한국관 예술감독)가 지도교수를 맡으며, 드루 브로데릭(Drew Broderick, 하와이 트리엔날레 협력 큐레이터) 등 국내외 전문가 16명이 강연, 토론, 현장 답사 및 그룹 활동 등으로 구성된 집중형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민참여 투어프로그램'은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총 20회, 5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주요 미술관과 5·18 사적지를 연결해 '포용'과 '도시와 비엔날레'를 주제로 전문가 해설이 곁들여진 참여형 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시민뿐 아니라 대학생·대학원생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www.gwangbiennale.org)나 전화(062-608-4289)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진행된 '전시해설사 양성과정'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전문 해설사 50명이 참여했다.

현대미술 기초 이해, 전시 해설 방법론, 프레젠테이션 스킬, 관람객 맞춤형 소통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실천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미술관 연계 현장실습과 전시 해설 시연을 통해 전시해설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광주비엔날레 해설사 전문인력풀을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신하 문화정책관은 "이번 아카데미는 일반인부터 전문 큐레이터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이 광주의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학



습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충장로에서 열리는 특별한 가을 장터

6일 충장로 4가 일대, '도깨비장터 IN 충장로' 개최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충장로 4가 일대(옛 조흥은행 사거리)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축제 'RE:VERSE 도깨비장터 IN 충장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깨비장터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총 3회 추진되는 정기 프로그램의 첫 행사로, 총장상인회(회장 주승일)가 주최·주관한다. 동구는 행정지원, 홍보 등 협력처로 함께한다.

행사에서는 오전 11시 대규모 상가 할인전과 플라마켓을 시작으로 식전 공연, 개막행사, 버스킹 공연 등이 밤 9시까지 다채롭게 마련된다. 문구·도서·먹거리·공예품 등 약 30개 팀과 마켓리·홍여무침·분식 등 지역 먹거리팀이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며, '골목대장 게임존'(딱지치기, 오목, 보물찾기 등)도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놀이가 펼쳐진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총장상인회가 마련한 대규모 상가 할인전이 열려 신라원(짜장면 4천 원), 청하(굴비 정식 1만 원), 몽크(기성복 3만 원), 노들담(수제화 전 품목 3만 원) 등 상점의 다양한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또 행사장에서 3만 원 이상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온누리상



마련돼 방문객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앞서 축제를 위해 총장상인회는 동구청과 함께 매주 월요일 정례 회의를 13회 열어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행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고, 행정기관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도깨비장터는 상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방문객들이 충장로에서 레트로의 향수와 뉴트로의 설렘을 동시에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 서구 주민총회 혁신... 주민을 정책 주체로

주민총회, 속의 중심 공론장으로 전환... 생활 민주주의 실현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생활 민주주의의 성공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서구는 지난 6월 품앗이동을 시작으로 오는 6일 상무2동 일대까지 18개 동 주민총회를 마무리한다.

주민총회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속의와 토론을 거쳐 마을 정책을 결정하는 대표적 주민참여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총회를 지역축제와 병행해 진행하면서 본연의 목적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서구는 올해 운영방식을 전면 개설했다. 주민총회를 마을 축제와 분리하고 장소도 야외에서 실내로 옮겨 차분하고 집중된 토론 환경을 조성

했다. 또 의제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인1표' 원칙과 본인 확인을 위한 온라인 인증 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각 동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 ▲착한약속 배려주차 캠페인 ▲건조실은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청소년을 위한 축제 개최 ▲모두가 안전한 보행길 조성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착한 골목상권 조성 ▲겉으면서 기부하는 기부쿠폰 등 주민 참여 중심의 다양한 의제들이 발굴됐다.

주민들은 "단순한 행사에 그쳤던 주민총회가 본래의 의미를 되찾으면서 아이들에게도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됐다"며 "주민의 힘으로 마을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는 자리였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총회는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해 나

가는 진짜 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책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공고히 하고 주민 주도의 결정이 일상이 되는 마을 중심 진짜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석우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점포의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주거·점포 안전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스마트 주거·점포 안전지킴이 사업은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관내 1인 가구와 1인 여성 점포에 스마트 도어 센서 및 CCTV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남구는 사업비 2,050만원을 투입해 이달 중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10월부터 관내 17개동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인 1

광주 남구, '수상한 움직임 감지' 1인 가구 보안 강화

가구·점포 200곳에 스마트 도어 센서·홈캠 공급

인 가구와 여성 홀로 운영하는 미용실 및 네일샵 등 점포를 포함해 총 200여곳에 해당 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먼저 각 가정과 점포에는 문 열림 센서와 CCTV 2가지 스마트 기기를 제공한다. 스마트 도어 센서는 현관문의 열림과 닫힌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거자에게 현 상태를 제공하는 기기로, 스마트폰과 연동돼 언제 어디서나 현관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이 열리거나 닫혔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현관문도 제어할 수 있어 주거자 보안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 및 점포용 CCTV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한다.

실시간 움직임 감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집안 내 움직임을 자유자재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자

가 외출 또는 집 안에 머무는 상황에서 외부 침입 등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휴대전화로 알림 메시지가 전달한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기기 보급으로 위기 대처도 가능해 심리적 불안을 떨칠 수 있고, 실생활 주변 보안성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주거 취약계층인 1인 가구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방범청과 도어락, 호신용 스프레이, LED 안전 후루라기, 송장 지우개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는 안심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임재일 기자

복구, 공무용차량 '무료'로 이용하세요!

복구 주민 공무용차량 무상 공유사업 '복구 나눔카' 추진

광주시 복구(구청장 문인)는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무용차량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유하는 '복구 나눔카'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무용차량을 주민들과 공유하여 생활 속 이동 수단이나 여가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류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가정 ▲다자녀 가정(2명 이상 자녀 양육, 자녀 중 한 명이 19세 미만인 가정)이며 운전자는 26세 이상 70세 이하의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자이면서 최근 2년간 중대한 교통사고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유 차량은 승합차(11인승) 및 승용차(5인승) 등 총 2대이며 이용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과태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차량 이용은 가구당 월 2회 가능하며 연속된 공휴일의 경우 한 번에 최대 5일 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차량 이용 희망일로부터 20일~10일 전까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복구청 회계과에 서면(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자격 확인을 거친 후 이용일 5일 전까지 문자 메시지로 승인 여부가 안내되며 승인된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을 수령 및 반납하면 된다.

문인 복구청장은 "공무용차량 공유사업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이자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